

# “문화·미래산업으로 도약” ‘새희망 군민행복 시대’ 선언

## 최경식 남원시장 취임식

민선 8기 제10대 최경식 남원시장이 취임 전 간부들과 함께 민인의 총의를 담아낸 취임사를 갖고 첫날 시정행보에 나섰다.

1일 최경식 남원시장 취임식은 오전 10시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이호호 국회의원을 비롯 기관사회단체장 주민 출장인사 등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남원시립국악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 및 국민약례, 취임선서,



취임사 대통령 축하메시지, 축하공연,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남원=김기두 기자

한편 최경식 시장은 취임사에서 “문화와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남원,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남원을 만들겠습니다”라는 프로젠데이션으로 취임사를 대신하며 취임식 참석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특히 최 시장은 “세대교체와 새로운 변화라는 가치를 내걸고 그동안 소중히 지켜온 것 위에 새로움을 더해 문화와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남원,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남원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임실에 산다는 것, 자랑 되도록”

## 심민 임실군수 취임식

역대 첫 3선 군수가 된 심민 임실군수가 1일 청원초회로 민선 8기의 합찬 출발을 하며 첫 행보를 시작했다.

심 군수는 전 직원이 참석한 청원초회에서 “임실에 산다는 것을 자랑으로 삼도록, 앞으로 4년 혼신을 다해 일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심 군수는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사상 첫 3선 임실군수라는 새 역사를 만들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군민과 함께 자랑스런 임실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부터 시작되는 민선 8기 4년 동안, 지금껏 추진해온 현안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고, 군민들에게 약속한 민선 8기 비전을 확실하게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예산 8천억원 시대의 자신감을 피력했다. 심 군수는 “오는 8월



예정인 제2회 추경에서 우리 군 재정 규모가 무려 6300억원을 넘게 됐다”며 “앞으로 4년 동안 제가 공약했던 예산 8천억원 시대를 열 수 있게 더욱 노력해서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심민 군수는 이날 청원초회에서

“군민 모두가 풍요롭고 행복하게, 오로지 성공적인 민선 8기를 이끌고, 임실 사는 것이 자랑스럽도록 모든 열정을 쏟겠다”며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하여 군정 현안사업 추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 꼭 이뤄낼 것”

## 최영일 순창군수 취임식

순창군이 지난 1일 순창읍 장애인체육관에서 최영일 제50대 순창군수가 취임식을 갖고 민선 8기 순창군수로서의 출발을 알렸다고 밝혔다.

취임식 당일 최영일 군수는 오전 9시 군청사에 들러 부군수 국장, 실과 원소장, 읍면장 등 간부소개를 듣고 앞으로의 군정 운영 방안에 대해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어 군청 간부들과 함께 순창 제일고에 소재한 충훈탑에서 한화·분향 후 취임식 장소로 이동해 취임식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취임식은 최영일 군수의 가족, 순창군의회 신장이 의장과 의원 지역 사회단체장과 구심체 등 1,200여명의 각계각층의 인사와 군민들이 참석해 군민과 화합하는 주민 참여형 행사로 치러졌다. 전임 군수인 강인



형 전 군수와 황숙주 전 군수도 참석해 박수를 보냈다. 최 군수는 취임사에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꼭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최 군수는 오전 10시 진행된 취임식 행사를 마치고 6명의 신임 공무원에게 사령장을 교부한 뒤 청내 13개 부서가 속속 가동되며 순창을 방문하며 취임 첫날 일정을 마쳤다. /순창=이양원 기자

## 최영일 순창군수, 순창형 5대 보편적 복지정책 추진 ‘시동’

민선8기 최영일 순창군수가 새희망 군민행복시대를 뒷받침할 강력한 복지정책 추진 실행안을 쏟아냈다.

최영일 군수는 지난 1일 취임식을 마치고 1호 결재로 순창군민 행복생활기반권 보장을 위한 순창형 보편적 복지정책 추진 기본계획에 서명했다.

이날 최영일 군수가 결재한 내용은 과감한 군민체감형 정책전환과 투자로 실질 인구를 유입하고 실제 살고 있는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을 탄탄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선 5대 복지정책을 우선 시행한다.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아동수당 지급이다. 이 사업은 0세부터 19세까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아동들에게 매월 4만1천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두 번째 사업은 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에게 4년간 등록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세 번째는 지역에서 초중고를 졸업하고 순창에 정착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월 30만원의 종자보장금 지급하는 사업이다. 네 번째는 지역 농민들의 자급심을 높이고 기본생활권 보장을 위해 농민기본소득을 연차적으로 200만원

까지 확대하는 사업이다. 마지막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행정명령 기간 동안의 손실보전금을 순창군 차원에서 보충해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들은 최영일 군수가 후보 시절 군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으로 군은 앞으로 세부실천방안을 세심히 다듬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빠른 시일 내에 마친다는 계획이다. 특히 농민수당 단계적 확대와 순창형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지원은 올해 안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그동안 무분별하게 진행해온 대형시설사업에 대해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재검토해 재정구조의 비효율화를 효율화하는 등 세출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최영일 군수는 “최소한의 인건비로 생활을 할 권리가 국가가 보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순창군은 군민들이 기본권을 넘어 순창에 살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생활기반권을 보장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친한F&B,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수상

### 전북 중소기업인대회, 국가산업발전 이바지 공로 인정

### 임실N치즈 등 지역농산물 사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임실N치즈를 이용한 식육가공 전문기업인 (주)친한F&B(대표 정승관)가 지난 6월 21일 라한호텔에서 개최된 2022년 전북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국가산업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전북지방조달청 및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전북지역 중소·벤처 기업인들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자긍심을 높이고자 마련되었다.

올해 정부포상에서 모범 중소기업인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주)친한F&B 정승관 대표는 식육가공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전문가이다.

2019 IFFA 독일 식육가공박람회’에서 아시아 최다 메달(17개)을 수상하는 등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치즈소세지·치즈돈까스 등을 생산하며 임실N치즈를 비롯한 지역농산물 사용과 지역민 고용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정승관 대표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사업을 확장해나갈 계획이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어려운 곳에 따뜻한 정을 나누는 기업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 노지 복숭아 수확 ‘한창’

### 수확 1주 전 타이백 과수 아래 설치 수분 흡수역제 장마기간 길어질수록 타이백 농업 장점 빛 발할 듯

전국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남원 노지 복숭아가 전국의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지난 6월 중순부터 바쁜 손길로 수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가 많이 오면 과수가 수분을 흡수해 과일에도 평소 대비 많은 수분이 전달되며 구름으로 인해 햇빛을 가리기 때문에 과일의 당도가 떨어진다.

반면 남원시농업기술센터에서 복숭아 생산단지 품질향상 시범사업으로 타이백 5ha를 보급 과일 당도 형성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 수확 1주 전 타이백을 과수 아래에 설치해 수분 흡수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재배하며 장마철에도 높은 당도를 유지하도록 진행, 올 장마가 시작되고 장마기간이 길어질수록 타이백 농업의 장점이 빛을 발

할 예정이다.

복숭아 농가들이 비로 인한 당도와 선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타이백은 빗물이 고이는 것을 방지해 장마기간에도 다른 복숭아 비해 당도 유지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또한 타이백은 사과에 쓰던 반사필름과 달리 열반사 하지 않고 빛이 잘 닿지 않는 과실의 아래쪽에도 햇빛을 골고루 전달해 일조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 이로 인해 복숭아의 당도와 색택도 우수하게 만들어준다.

센터 과수담당자는 “소비자들의 입맛이 까다로워지고 있으므로 고품질의 복숭아 생산이 필요하며, 복숭아의 최고품질화를 위해 꾸준한 병해충 예방과 방제교육 등 지속적인 개선사업과 복숭아 고품질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 최대 물놀이시설 본격 개장

### 요천 수경 물놀이장, 내달까지

남원시가 아름다운 남원 요천 고수부지를 활용해 조성한 요천 수경 물놀이시설을 지난 1일 본격 개장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물놀이시설은 남원시민과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요천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설치됐으며, 4월 1일부터 운영 중인 남원 최대 음악분수인 요천 수경 음악분수 옆에 위치하고 있다.

최근 남원시는 시험운영을 마무리한 요천 수경 물놀이시설을 이달부터 8월까지 최대의 여름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만전을 기했다.

규모는 1,170㎡로 유수풀장, 물놀이장, 바닥분수와 9종의 물놀이구로 구성돼 있어 가족단위, 연인, 어린이 등 남녀노소 누구든지 남원을 즐기고 추억할 수 있는 색다른 공간이 될 예정이다. 운영은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30분, 오후 4시에 각 90분간 일 3회 운영하며 매주 월요일과 비 오는



날은 휴장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 등을 확충할

오셔서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더 특별한 남원관광지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지역 소식통

### 남원시보건소, 살모넬라 식중독 주의 당부

남원시보건소장(소장 한용재)은 연이은 폭염 속에 식자재 등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조리식품 보관·섭취 및 개인위생에 각별한 주의의를 당부했다.

살모넬라균은 열에 약한 특성이 있어 난류, 육류 조리 시에 중심온도가 살균온도 이상(75°C, 1분 이상)이 되도록 충분히 가열·조리하고, 음식 보관 시 냉장보관 5°C이하로 유지하고, 기본적인 식중독 예방법인 손씻기를 생활화하여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손씻기 △인허막기 △끓여먹기 △끓·도마 구분 사용하기 △세척·소독하기 △보관온도 지키기 등 실생활에서 충분히 실천 가능한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을 준수하고 △갑갑 등 변질되기 쉬운 조리 음식은 가급적 빨리 섭취하거나 충분히 식혀 냉장 보관하고 △남은 음식은 재가열 후 섭취하는 등 여름철 식중독 예방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임실군, 지적재조사 민원 최소화 총력

임실군이 지적불합치 해소를 위해 관촌·덕천지구 1.512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현 지적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확하게 조사 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200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소관청-LX-민간측량업체의 협의를 구성 운영하여 협의체 회의를 통해 경제설계기준 및 토지현황 현지조사 방법 등을 공유한다.

합동실무교육 및 수시회의를 주·2회 추진하여 민원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협의를 통해 관촌·덕천지구 민원 최소화 노력하고 있다.

협의체를 구성하여 업무협의를 통해 사전에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현장 상황에 맞는 탄력적 대응으로 주민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민원을 방지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재가 암환자 스트레스 관리 ‘소나기 프로그램’ 운영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재가 암 대상자와 가족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소나기 프로그램’을 6월 8일 시작해 2회기를 마쳤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에서는 각 읍·면·동 지역의 신청자 30명을 대상으로 1회기 소통의 시간과 웃음 요법을 진행하고, 2회기 노래교실 및 레크리에이션 등으로 재가 암 대상자와 가족들의 스트레스 관리에 중점을 두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동 지역 김모씨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간혹사가 전화를 준 성의가 고마워서 왔더니 안 왔으면 후회했을 뻔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만진 치매안심과장은 “오는 6월과 8월 진행되는 2회기 프로그램 또한 참여자들이 더 많은 기쁨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알차게 운영하고, 재가 암 대상자와 가족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